

데이터 기반 근대 백화점의 문화 경관 복원

: 1930년대 종로 화신백화점 시맨틱 아카이브 구현 연구

인문정보학과 박사과정 김지선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문제의식1: 왜 1930년대 화신백화점인가
 - 2) 문제의식2: 왜 데이터 처리 기반의 연구가 필요한가
2. 연구 대상
 - 1) 연구의 범위
 - 2) 화신백화점 관련 기록물
 - 3) 유관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 1) 데이터 수집 및 편찬
 - 2) 데이터 큐레이션과 분석 및 시각화
 - 3) 데이터 개방과 공유
 - 4) 인문 데이터의 편찬과 활용에 관해
4. 논문의 구성

II. 대상자원 분석 및 정리

1. 화신백화점의 건립과 성장
2. 화신백화점 관련 기록의 양상과 특징

Ⅲ.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1.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개요
 - 1) Ontology 설계와 Triple(S-P-O) 데이터 편찬
 - 2) 링크드 데이터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현
2. 화신 백화점 데이터 기술 체계의 밑그림
3. 온톨로지 설계
 - 1) 클래스(Class) 설계
 - 2) 관계(Relation, ObjectProperty) 설계
 - 3) 속성(Attribute) 설계

Ⅳ.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과 그 내용

1. 노드 데이터: 개체(Individual) 현황
2. 링크 데이터: 관계(Relation) 현황
3. 전체 데이터 규모와 활용 맥락

Ⅴ. 데이터 아카이빙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활용

1. 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 개요
2. IIF를 활용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와 그 의미
3. 근대기 화신백화점 유관 기록과 IIF의 활용 맥락

Ⅵ. 데이터를 활용한 화신백화점 탐색과 그 결과

-추후 개별 항목 정리를 통한 서술 예정.

Ⅶ.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문제의식1: 왜 1930년대 화신백화점인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은 근대사 연구에 있어 좀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공백으로 남아있다. 1920년대 문화통치를 기반으로 당시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식하거나 또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문물과 재조일본인 사회를 매개로 유입된 문물 등 다종다양한 근대 문물이 굴절되어 소개되고 자리 잡은 시기이기도 하며,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당대 전시체제 정책에 경제-정치-사회적 차원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1920년대와 1940년대 사이에 위치한 식민지 중간기로서 당시 통치 주체였던 일본을 늘 상정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정치, 경제, 산업, 외교, 군사,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된 영향 관계로 인해 복합적 양상이 드러나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영위한 사람들의 실생활에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거시적 차원의 접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의 단서를 발굴해 나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여러 차원을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 사회의 복잡다기한 특징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 매개가 있으니 바로 극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공간이다.¹⁾ 관련해서 극장의 경우 연극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등 문화적 성격의 상품을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이 지닌 문화적 성격과 일부 공통된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백화점은 그러한 서비스 외에도 소비재로서 다양한 상품을 유통·판매한다는 점에서 극장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써 보건대 당대 사회의 특징적 요건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볼 경우, 극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백화점이 지닌 문화적 외연이 더욱 풍부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1)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시골서 서울을 나오면 누구나 반듯이 차저가는 곳이 두곳있다. 한군데는 화신백화점이고 또한군데는 동양극장이다.” - 「東洋劇場賣買顛末記」, 『實話』 제2권 제9호, 1939. 9, 54쪽.

백화점(百貨店)은 단어 그대로 ‘온갖 상품이 있는 상점’으로, 당시 사람들이 취한 여러 형식의 소비행위를 통해 문화적 차원의 다채로운 욕망 및 당대의 유행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본 집약체로서의 공간이다. 근대기 백화점의 등장은 기존 재래 상권의 변화를 촉진하였으며, 동시에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소비문화 체험을 가능케 하였다. 백화점은 상품을 매개로 소비와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place)이자, 사람들을 욕망하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공간에 다시금 반영하는 주체(actor)로서 기능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백화점은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백화점은 조선 전국 곳곳에서 개점되었다. 예를 들어 개성 최초 백화점 김재현 백화점(金在鉉百貨店)을 비롯하여 평양 평안(平安), 함흥 동양(東洋), 청진 대동(大同), 군산 풍천(豐泉), 목포 전남(全南), 대구 무영당(茂英堂)과 동신(同信) 백화점 등이 있었으며, 경성부에는 히라다(平田), 조지야(丁子屋), 미츠코시(三越), 미나카이(三中井) 그리고 화신(和信) 백화점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1930년대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백화점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종로 화신백화점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식민지 조선의 중심 도시 ‘경성’ 중심부에 소재했던 화신백화점이 지난 대표적 상징성과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다.

식민 국가의 도시 공간에는 지배 국가의 권력과 지배 이념이 반영된다. 유럽 제국주의가 지배한 많은 도시들의 식민지 구역 사례가 그러했듯이 도시계획은 정치적 주장이나 이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왔다.²⁾ 식민도시계획은 필연적으로 지배 국가의 이익과 식민 국가의 효율적인 지배에 맞추어 설계되고 실행되므로, 식민도시의 공간 구조를 통해 통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식민도시계획은 공간을 매개로 한 포함과 배제를 통해 식민도시에 거주하는 내지인과 식민지인이 지닌 도시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쳤고,³⁾ 이에 따라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생활 공간 사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형성되었다. 경성은 소위 전근대 왕조의 수도에서 식민 행정중심도시가 된 공간으로, 일본은 전근대 도시공간을 해체하여 근대 도시로 재편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⁴⁾ 경성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공간이 공존한 식민지 도시로서, 도

2) 리브커 야퍼(저)/박지환(역), 『도시인류학』, 일조각, 2020, 263쪽.

3) 리브커 야퍼(저)/박지환(역), 위의 책, 263쪽 참조.

4) 하시아 히로시는 일제가 건설한 식민 도시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일제에 의해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로서, 조선의 부산·인천·원산, 대만의 가오슝(高雄)·지룽(基隆), 만주의 다롄(大連) 등의 항만도시와 조선의 흥남, 타이완의 가오슝, 만주의 푸순(撫順)·안산(鞍山)·번시후(本溪湖, 지금의 번시) 등과 같은 산업 도시가 이에 속한다.

시 공간 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구조를 살펴볼 경우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식민 지배 초기부터 토착민의 공간과 이주민의 공간이 구별되었으며, 이러한 공간의 분할은 곧 거주민으로 하여금 지배와 피지배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공간과 관련된 인식은 토착민과 이주민들이 도시 내 새롭게 조성된 근대적 문물을 대상으로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은연중 이질적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근대 도시가 공간을 매개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에게 이식하는 근대성 이면에는 차별과 지배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성은 물리적으로는 단일 도시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도시가 있었으며 각 도시에 대한 개별 계획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토대 위에서 1930년대 북촌에 위치한 유일한 민족계 백화점으로서 화신백화점을 들여볼 경우, 미츠코시 등 당시 일본계 백화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일본의 식민자이자 동시에 조선 민족으로서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중화된 문화적 인식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표상되는가에 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화신백화점은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창업되고 운영되었기에, 1930년대에 이루어진 여러 정치 환경의 변화가 백화점 운영에 미친 막후의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화신백화점 설립자인 박흥식(朴興植, 1903~1994년)은 대표적 근대 자본가 중 한 명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자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직을 맡으며 ‘우리의 사라나갈 길은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라는 정신 밑에서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소용하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⁵⁾이라고 주창하며 민족 상권을 수호하겠다는 이념으로 화신백화점을 개점

이들 도시는 일본인 시가지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도시 거주민 가운데 일본인 비율이 높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의 도시 위에 식민지 도시가 중첩되어 형성된 경우로, 대만의 타이베이(臺北)-타이난(台南), 조선의 경성·평양·개성 등 전통적 성곽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해당 도시들은 오랜 기간 자리해온 토착민 시가지와 새롭게 형성된 일본인 시가지가 병존하며 발달한 이중도시(dual city)이다. 세 번째 유형은 평톈(奉天, 지금의 심양), 신징(新京, 지금의 창춘), 하얼빈(哈爾濱) 등 기존의 대도시 근교에 일제가 신시가를 건설해 형성된 도시로서, 주로 만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도시는 토착민 시가지와 일본인 시가지가 별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할 수 있다. 하시야 히로시(저)/김제정(역),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 17~19쪽. ;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일본』, 문학과 지성사, 2009, 171~172쪽.

5) 박흥식, 「經濟的 新興의 責任을 다하라」, 『新興朝鮮』 창간호, 1933. 10, 4~5쪽(오진석, 「일제하 박흥식의 기업가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제118집, 2002, 111-112쪽에서 재인용).

하였다. ‘여러분의 백화점’⁶⁾, ‘조선의 백화점’⁷⁾ 등 민족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쳐 조선인 고객들을 유치하였고,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민족 상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과 서비스를 매개로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다종다양한 일들이 발생한 복합적 성격의 생활-문화 공간이었다. 화신백화점은 다양한 매출 및 경품 행사를 주최했는데, 연초·중원·연말은 물론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다양한 매출 행사를 열거나, 일등상으로 동양일주 주유권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⁸⁾를 개최해 경찰관과 기자들 입회 하 추첨을 진행하였다⁹⁾. 또한, 특정 브랜드 행사¹⁰⁾를 기획하여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살 때마다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거나, 반값에 화장이나 결발(結髮) 등을 받을 수 있는 미장부 행사¹¹⁾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습회를 주최하였는데, 예컨대 1933년 9월 20일에서 30일까지 실을 1파운드 이상 사는 사람에게 무료 강습권을 제공하여 제1회 편물강습회를 열었고¹²⁾ 이듬해인 1934년 3월 14일부터 18일에도 제1회 여자 문화자수 무료 강습회를 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 초기 모집 인원보다 수강 인원을 증원하기도 하였다.¹³⁾

화신백화점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공간을 빌려주는 대관장으로서도 기능하였다. 예컨대 동관 4층 홀에서는 1932년 11월 6일 제6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 탁구대회¹⁴⁾와 1932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업품 전람회¹⁵⁾가 열렸고, 동관 5층 홀에서는 1934년 5월 16부터 22일까지 서양화 단체인 목일회(牧日會)가 주최한 제1회 양화전람회¹⁶⁾가, 1934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제1회 동양자수 미술품 전

6) 1932년 5월 10일 『조선일보』 3면과 1938년 1월 1일 『조선일보』 석간 8면에 실린 전면광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1934년 1월 5일 『경성일보』 6면과 1934년 1월 9일 『조선신문』 3면에 실린 광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和信商會의 部署投票入賞」, 『조선일보』 1932. 12. 6.석(7).

9) 「和信商會懸賞 抽籤結果發表」, 『동아일보』 1932. 12. 6.조(2).; 「和信景品抽籤」, 『동아일보』 1933. 2. 2.조(2).; 「和信추첨發表」, 『동아일보』 1933. 11. 08.조(3).

10) 예컨대 화신백화점은 1933년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金鶴데이’를 개최하여 해당 브랜드 화장품이나 비누를 하나 살 때마다 여행용 비누를 증정하는 행사를 주최하였다. - 「金鶴데이開催中」, 『동아일보』 1933. 5. 23.조(3).

11) 1933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석간) 2면 11단에 실린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올가을의 털실값 작년보다一할이올라」, 『동아일보』 1933. 9. 19.조(6).

13) 「文化刺繡講習」, 『조선일보』 1934. 3. 15.석(2).

14) 「集會」, 『동아일보』 1932. 11. 6.석(7).

15) 「副業品展示會」, 『경성일보』 1932. 9. 17.석(4).

16) 「西洋畫家新團體 牧日會展覽會」, 『조선일보』 1934. 5. 8.조(2).

람회¹⁷⁾가 개최되었다.

또한, 화신백화점은 각종 경기나 공연의 입장권 예매처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선체육회와 고려육상경기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1932년 11월 제13회 전조선축구대회¹⁸⁾와 같은 해 12월에 열린 조선체육회 주최 제3회 전조선 역기대회¹⁹⁾ 등과 같은 경기의 입장권뿐만 아니라, 1933년 5월 10일에 공회당에서 열린 세계적인 밴조(banjo) 연주자 최리차드(Richard Chang Choy)의 고국 방문 독주회²⁰⁾나 1934년 4월 10일 공회당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이애내(李愛內)와 테너 이인선(李寅善)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안병소(安柄瑠)의 고별 음악회²¹⁾와 같은 공연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화신백화점은 각종 행사에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는 기증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 육상경기대회에 타올을²²⁾, 1933년 11월 8일 덕수궁에서 열린 경성초등학교 교원회 주최 경로회에는 기념 메달²³⁾을, 1933년 2월 11일 제5회 현상여자가투대회에는 향수 용기²⁴⁾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총로의 중심지로서 화신백화점은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다. 화신 앞 사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고²⁵⁾ 방문객이 봄비는 탓에 화신백화점 안팎에서는 실종 사건²⁶⁾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절도 행위²⁷⁾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일어났는데, 1934년 11

17) 「第一回東洋刺繡美術品展覽會」, 『조선일보』 1934. 6. 5.(1).

18) 「大會入場券와 十個所의豫賣」, 『동아일보』 1932. 11. 1.석(1).

19) 「運動競技 力技大會參加申請 明七日까지接受」, 『조선일보』 1932. 12. 7.석(2).

20) 「左記六處에서 會員券豫賣」, 『동아일보』 1933. 5. 9.석(2).

21) 「人氣沸騰한 渡歐三人演奏」, 『조선일보』 1934. 4. 8.조(2).

22) 예를 들어, 1932년 10월 22일 제8회 전조선 육상경기대회에는 타올 6타를, 1934년 7월 7일 제1회 노동 육상경기대회에는 타올 5타를 기증하였다.

23) 「初等敎員會主催 敬老會開催」, 『조선일보』 1933. 11. 9.석(2).

24) 「選至하는 寄贈品」, 『조선일보』 1933. 2. 12.석(4).

25)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花辰에 놀아난 人波 混雜交通,事故簇出」, 『동아일보』 1933. 4. 25.석(2); 「전차에상한사람 太西館의雇僱人」, 『동아일보』 1933. 4. 25.조(2); 「佛國領事館自働車에 鍾路서幼兒轢傷」, 『조선일보』 1933. 11. 11.조(2); 「佛人車에치어 三歲兒重傷」, 『동아일보』 1933. 11. 11.조(2); 「老婆自轉車에轢傷」, 『조선일보』 1934. 3. 31.조(2).

26)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녀자들을피어내는 여름거리의유혹」, 『조선일보』 1934. 6. 21.석(2); 「精神病者失蹤 화신구경중에」, 『동아일보』 1933. 8. 17.석(2).

27)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和信商會三層에서 뛰어내리다 重傷」, 『매일신보』 1932. 8. 21.석(2); 「包紙を元手に 女の萬引團」, 『경성일보』 1932. 9. 3.석(2); 「和信商會에서 陳列한구두훔쳐」, 『조선일보』 1933. 2. 16.석(2); 「구두專門竊盜」, 『동아일보』 1933. 2. 16.석(2); 「八人團竊盜」, 『동아일보』 1933. 2. 22.석(2); 「百貨店을속이고 貨車로商品竊取」, 『동아일보』 1933. 3. 10.석(2).

월 6일에는 강풍으로 인해 옥상 횡간판이 전선 위로 추락하여 종로 1정목과 남대문
통 1~2정목 일대가 1시간 가량 정전되기도 했다.²⁸⁾

이처럼 근대기 백화점은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복합적 공간의 면모를 보여준다. 백화점에서 판매한 상품이나 백화점이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당시 변화해 가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백화점 내 다
양한 행위자(방문자-소비자-판매자-경영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통해 그 당시
를 살아가던 다양한 계층의 면모를 들여볼 수 있다. 또한, 백화점과 관련된 여러 문
화 행사나 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문예적 기록에 나타나는 백화점에 관한 설명이나
묘사 등을 살펴보면 당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문화적으로 수용되던 특질에 관해서
도 살펴볼 수 있다.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들여본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물
품의 판매와 구매 양상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백화점을 매개로 발생한 다양한 사
건을 복원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들여볼 때 가능하다. 종로 화신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그 외에 어떠한 행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했는지, 원치 않게 휘말린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백화점을 공간적
매개로 벌어진 사건은 무엇이며 해당 사건이 왜 백화점에서 발생했는지 등 그러한
양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당대 복합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화신백화점
이 기능했던 다채로운 지점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 문제의식2: 왜 데이터 처리 기반의 연구가 필요한가

화신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동안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자 개인이
발표한 논문이나 학술단행본, 기관이나 연구단체에서 간행한 보고서나 도록 등 다채
로운 유관 정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 곳곳에 파편화되어 존재한다. 그렇기에
유관 자료나 정보를 한데 모으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지식 발굴 및 전달에 초점을
둔 논증 기반의 연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체계

28) 1934년 11월 6일 정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할 수 있다. 「“和信”看板
顛落으로 高壓電線이絶斷」, 『조선일보』 1934. 11. 8.석(2).; 「昨夜强風雨襲來 猝然氣溫低
下」, 『조선일보』 1934. 11. 8.석(2).; 「和信五階빠락 撤毀를命令」, 『조선일보』 1934. 11.
8.조(2).; 「昨日,市內暴風雨被害 北部一帶暗黑世界」, 『동아일보』 1934. 11. 8.석(2).; 「昨夜
暴風雨의作戲 鍾路街를暗黑化」, 『매일신보』 1934. 11. 8.석(7).; 「强風으로 鍾路四街에 떠
러진 和信百貨店 屋上看板」, 『조선중앙일보』 1934. 11. 8.석(2).; 「高層屋上의看板은 斷然
撤毀를嚴命」, 『매일신보』 1934. 11. 9.석(7).

적으로 수집-정리-공유하는 자료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맥락에 관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로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유관 자료를 다루는 아카이브의 종류가 방대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화신백화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구자(A)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기 위해, 우선 유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처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근대기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자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접근이 쉬워졌다는 것은 곧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소장 기관의 개별 운영 목적에 따라 유관 자료가 선별적으로 수집되어 국내외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특정 자료가 어떤 기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연구자(A)는 우선 아카이브 통합 제공 사이트²⁹⁾에 접속해 연구 대상과 유관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자료를 검색해 연구 자료의 소장처를 파악한다. 그러나 그렇게 정리한 소장처 목록은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통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소장처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며,³⁰⁾ 연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 해당 기관의 소장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³¹⁾ 또한, 통합 사이트에 연계되지 않은 기관도 다수이다.³²⁾ 이처럼 연구자(A)는 연구 자료 소장처 파악 기초 단계에서부터

29) 대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URL: <https://kdp.aks.ac.kr/>)과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URL: <https://emuseum.go.kr/main>)을 거론할 수 있다.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은 2024년 1월 28일 기준 27개 기관의 82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되어 있으며, e뮤지엄은 2024년 1월 28일 기준 356개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 문화유산 2,554,755점의 정보가 연계되어 서비스하고 있다.

30) 국립한글박물관은 2024년 1월 28일 기준 20,646건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e뮤지엄에는 21,330개의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정보가 서비스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e뮤지엄에서 제공하는 “신세계표 미술화관”(국립한글박물관/한구 14767)과 “경험신편(필사본)”(국립한글박물관/한구 14350)은 소장처가 국립한글박물관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품 목록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31)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을 예로 들자면, 2024년 1월 28일 기준 기관·DB명을 한국연구재단·기초학문자료센터로 지정해 ‘화신백화점’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아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화신백화점’을 검색하면 191개의 연구과제·연구성과물·토대연구DB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32) 2024년 1월 28일 기준 e뮤지엄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 정보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어려움에 부딪힌다. 아카이브 통합 제공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의 소장처 정보를 추려낼 수 있으나, 결국 정확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A)는 도서관, 기록관, 기념관, 연구소, 박물관, 미술관 등 다종다양한 자료 소장처에서 서비스 중인 웹 사이트를 방문해,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장자료 목록을 검토하거나, 개별 기관에서 구축한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소장자료를 확인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려움은 발생한다. 기관마다 정리한 소장자료 정보 층위가 다르기에 키워드 검색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있으며, 기관에서 소장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간한 소장자료 목록집을 살펴보거나 기관에 직접 소장자료 목록 열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체 자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아카이브 기관에서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개략적인 연구 자료 소장처 목록을 정리한 연구자(A)는 웹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부터 수집하기 위해 개별 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디지털 아카이브를 방문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자료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연구자(A)는 동일한 대상 자료를 여러 기관에서 아카이빙한 것을 발견하고 한 곳을 대표 아카이브로 삼아 해당 웹 사이트에서 유관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개별 디지털 아카이브는 각각의 기관에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관한 자료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다루고 있는 콘텐츠가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별 기관 단위로 마련해놓은 독립적인 메타데이터 체계나 데이터 모델에 맞추어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기에, 연구자(A)는 웹 상에서 각각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데이터 체계에 맞추어 유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원자료 이미지에서 추출한 플레인 텍스트(Plain Text)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근대기 자료를 취급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대부분이 원문 텍스트화 작업이 되어있지 않기에, 연구자 입장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 색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해당 아카이브에서 마련한 메타데이터 체계나 데이터 모델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번째, 자료의 폐쇄성이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소장처 목록이 추려진

이후 연구자(A)는 개별 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대여 또는 열람하거나, 자료 복사본을 요청해 수취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일부 기관의 경우 자료 상태에 따라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자료도 비슷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나 기초적 성격의 메타데이터와 자료 일부만 제공할 뿐 자료 전문은 디지털화하지 않고 소장품 열람 신청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문제로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종다양한 자료에서 얻어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전한 결과물로 산출할 수 있어야 연구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수집한 자료나 정보를 연구자가 일일이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지식을 발견하고 유관한 중요 사항에 관해 수기로 기록할 수도 있겠으나, 1930년대에 간행되어 그동안 유통되어 온 자료의 종류 및 유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실정이다. 그 안에서 발견한 정보나 지식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논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물리적 차원의 한계가 뚜렷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백화점에 관해 직접 다루거나 백화점을 간접적으로 매개한 기록과 매체의 성격이 다양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범주의 자료를 다루기 위해 매개가 되는 요소가 생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차원에 복합적으로 걸쳐있다.

이와 관련해 아날로그 환경에서 논문이나 단행본과 같이 파편화된 형태로 화신백화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정리-활용하는 방식으로는,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처럼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근대기 화신백화점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매개로 기록된 다종다양한 근대기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현-연구할 것인가에 관한 시각에 입각해, 그것을 수행한 실제 과업 내용과 해당 과업에 적용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을 함께 정리-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유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체계화된 형식으로 새롭게 편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수집-편찬된 데이터셋을 큐레이션(curation)하고 분석(analysis)함과 동시에 시각화(visualization)함으로써, 데이터에 담긴 이야기와 그 문화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탐색-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매개한 연구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 표준적 형식으로 연구 데이터셋을 가공-개방하고, 연구에 활용한 알고리즘(source code)과 도구(tool)를 공유하는 것 또한 주요한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2. 연구 대상

1) 연구의 범위

화신백화점 설립자인 박흥식이 신태화(申泰和, 1877~미상)로부터 화신상회(和信商會)를 매수한 뒤 동아백화점(東亞百貨店)을 인수 합병한 1932년 7월부터 1937년 11월 10일까지의 종로 화신백화점을 중심적인 연구범위로 상정하였다.

[표 1] 1930년대 종로 화신백화점 변천 과정

연월일	사건	영업소
1931년 9월 15일	박흥식, 화신상회 매수하여 경성부 종로 2정목 3번지에 자본금 100만원의 주식회사 화신상회 설립	2층 건물 3층 건물
1932년 5월 10일	기존 목조 2층 건물을 콘크리트 3층 건물(약 500평, 종업원 총 153명)으로 증개축	3층 건물
1932년 7월 16일	주식회사 화신상회, 동아백화점을 인수 합병 이후 기존 화신상회 건물은 서관, 동아백화점 건물은 동관으로 칭하고 양관을 육교로 연결함.	3층 서관 4층 동관
1935년 1월 27일	오후 19시 30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관 전층과 동관 3, 4층이 전소됨 ³³⁾	-
1935년 1월 28일	화신 서대문연쇄점에서 본점 역할을 이행함.	화신 서대문연쇄점
1935년	-화신 서대문연쇄점에는 1층 포목부를 설치하고, 식당부	2층 화신

2월 8일	가 있었던 2층은 주단포목부와 양품부 등을 신설해 운영함. -동관 동측에 위치한 舊중로경찰서에서 화신임시영업소 개점 -동관 1층 임시 운영	서대문연쇄점
		2층 화신 임시영업소
1935년 9월 15일	전소되었던 동관 개수 증축(5층)하여 임시영업소로부터 이전 개점	동관의 1층
1936년 12월 5일	서관 동측 일부 준공 개점	5층 동관
		서관
1937년 11월 11일	지하 1층 지상 6층 신관 준공 개점	5층 동관
		지하1층~지상 6층 신관
		5층 동관

※(표 2)는 “화신오십년사편찬위원회, 『화신50년사:1926~1976』, 화신산업주식회사, 1977, 102쪽, 105쪽, 111쪽, 140쪽, 504~505쪽”과 “화신사십년사편찬위원회, 『화신40년사』, 화신산업주식회사, 1966, 76쪽, 80~81쪽, 304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화신백화점은 1932년 7월 16일 동아백화점을 인수 합병하면서 경성 내 유일한 민족계 백화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부터 화신백화점은 백화점으로서 그 외연이 커지기 시작했고 물리적 공간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전시체제 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백화점 업계는 경영 방식을 재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39년부터 전시하 저축장려 및 소비 자축을 위해 백화점에서 매년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7월 15일까지 열었던 중원(中元) 대매출 행사를 1939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지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에는 경품부 판매와 방문판매가 제한되고 포스터 선전과 특수한 점두 장식 및 점두 광고는 중지되었으며, 신문광고 및 광고지의 크기가 정해졌고 구매욕을 자극하는 광고 글귀 또한 사용할 수 없었다.³⁴⁾ 다음달인 8월 1일부터는 경성부 화신 백화점을 비롯하여 미츠코시와 조지야 백화점에서 한 달 두 번(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³⁵⁾)이었던 휴무일을 매주 월요일로 늘리게 되면서 백화점 영업일이 축소되었다.³⁶⁾ 당해 12월 1일에는 매년 열린 연말대매출도 폐지되었고 광고·선전·장식 등

33) 「今夕鍾路中心에大火 和信百貨店東西館全燒」, 『조선일보』 1935. 1. 27.; 「昨夕鍾路中心에大火 和信店東西館八分烏有」, 『조선일보』 1935. 1. 28.; 「和信大火災續報」, 『동아일보』 1935. 1. 27.; 「火因은失火로判明 西隣果物商에서出火」, 『동아일보』 1935. 1. 29.석(2); 「和信百貨店大火」, 『매일신보』 1935. 1. 28(1). 「和信大火原因判明」, 『매일신보』, 1935. 1. 29(8).

34) 「“中元賣出”廢止 百貨店서自肅協議」, 『동아일보』 1939. 6. 16.석(2); 「京城各百貨店中元自肅」, 『경성일보』 1939. 6. 16(7); 「百貨店協會中元賣出し自肅」, 『조선신문』 1939. 6. 16(4).

35) 「營業時間短縮等 百貨店自制協定成立」, 『동아일보』 1938. 3. 2.석(4).

에 사용할 수 있는 글귀가 제한되었으며, 특수한 점두장식과 점두광고, 쇼윈도 장식 또한 중단되었다.³⁷⁾ 판매 상품에 대한 광고나 선전이 어려워지면서 재화의 판매 중추이자 소비문화의 중심지로서 백화점이 내포한 성격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전시체제 돌입으로 인한 여러 제한이 발생하기 이전 소비와 각종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한 1937년 11월 10일까지의 화신백화점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신백화점이 운영되었던 모든 시기를 망라해 살펴볼 수 있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으나, 1937년 11월 11일 신관 개점 이후로는 화신백화점의 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다루어야 할 자료의 규모와 정보의 범주가 매우 커지기에, 개인 연구 과업으로 삼기에는 여러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추가로 1935년 1월 27일 화신백화점에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부터 1937년 11월 11일 신관 개점 사이의 화신백화점의 경우, 그에 관한 연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또한 시기를 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경성 본점으로 운영된 종로 화신백화점으로 한정하였다. 화신백화점은 본점 외에도 분점이나 연쇄점을 운영하였으며 본점 관련 기록물에도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점 및 연쇄점 자료를 모두 수집-정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고, 당시 북한에서 운영된 지점이나 연쇄점에 관해서는 그 정보에 온전히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제외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의 한정 범위

구분	범위
시간	1932년 7월 16일 ~ 1937년 11월 10일
공간	경성 본점으로 운영된 화신백화점 공간
기록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는 화신백화점 유관 기록물

36) 「百貨店の自肅」, 『조선일보』 1939. 7. 21.석(2); 「百貨店の自肅」, 『조선일보』 1939. 7. 21(2); 「京城百貨店の休日變更」, 『경성일보』 1939. 8. 1(2).

37) 「店頭裝飾과 大賣出廢止 府內百貨店協會의 自肅協議」, 『매일신보』 1939. 12. 3(3); 「『歲末贈答』お斷り 百貨店の『自肅』申合せ」, 『경성일보』 1939. 12. 3(2); 「百貨店協會에서 年末自肅協議」, 『동아일보』 1939. 12. 4.석(2).

2) 화신백화점 관련 기록물

1930년대 화신백화점의 문화적 외연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문 및 잡지에 실린 기사·광고·작품, 소설, 수필, 일기, 서적, 엽서, 사진, 동영상, 구술 녹취록 그리고 전단지·팸플릿 등의 문서와 실물 자료로서 물품 등 다종다양한 근대기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한 후 수집한 자료에 기술된 화신백화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적에서 대상 자료의 수집 범위를 1932년 7월 16일부터 1937년 11월 10일 사이 웹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³⁸⁾

[표 3] 연구 대상 종로 화신백화점 관련 기록물

분류	세부 항목
잡지	정기·연속 간행물
신문	민간지 및 기관지
문예적 성격의 작품	소설, 수필 등
동영상	화신백화점을 담고 있는 영상 기록물
이미지	사진, 엽서, 삽화 등
기타 기록물	일기, 구술채록문, 전단지, 팸플릿, 포스터, 포장지 등

가. 잡지

현재 근현대 잡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종다양하며 서비스 형식이나 수준이 상이하다. 개별 아카이브가 디지털화한 잡지의 저본이 다르고, 저본이 같다고 할지라도 디지털 포맷으로 구축 시 화질이나 스캔 대상 양도 다르기 때문에

38) 화신백화점을 실제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화신(和信)에서 간행한 기록물 가운데 사사(社史)로는 『和信四十年史』(1966)와 『和信五十年史:1926~1976』(1977)가 있다. 해당 간행물에는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다양한 사진과 기사뿐만 아니라 화신백화점 발달사와 운영 전략 그리고 경영자 박흥식의 생애, 화신 연보 등 화신백화점 연구에 있어 참고할만한 지점이 많으나 온라인 자원이 아닌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기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화신백화점 사보(社報)로는 1934년 6월 20일 (주)화신에서 발행한 『和信』이 있다. 해당 잡지를 통해 화신백화점 조직도, 경영진들의 인터뷰, 선전 전략, 1934년 화신백화점 총별 안내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잡지 호라도 여러 아카이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연구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잡지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나, 시간상 한계로 모든 잡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다.³⁹⁾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①개별 호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1932년 7월 16일부터 1937년 11월 내 발행된 잡지 가운데서도 ②당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사 등 다종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중 종합지를 중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宗教時報』, 『金剛山』, 『佛敎』, 『天道敎會月報』, 『聖書朝鮮』, 『一光』, 『가톨릭靑年』, 『경향잡지』, 『그리스도 中心의 信仰生活』, 『한인기독교보』, 『한인교회보』, 『가톨릭 研究』 등과 같은 종교잡지, 『한글』, 『正音』 등의 어학잡지, 『朝鮮體育界』와 같은 체육잡지, 『東洋醫藥』과 같은 의학잡지, 『普專學會論集』, 『新階段』과 같은 논문 수록 잡지, 『새벗』, 『少年』, 『어린이』 등 아동잡지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종합지 중에서도 ③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면서도,⁴⁰⁾ ④개별 호의 목차, 광고지, 판권지 등 전체 페이지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거나, ⑤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타기관 소장 잡지를 통해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잡지를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누락된 자료가 없는 잡지를 대상 자료로 선정한 까닭은, 잡지 검토 작업의 경우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며 화신백화점이 언급된 작은 단서를 찾아내야 하는 일종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도 같기에, 원문을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을지라도 잡지 한 권이 온전히 디지털화된 것이 아니라 개별 기사 단위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해당 잡지 호수를 대상 자료에서 제외했다.⁴¹⁾ 기사와 기사 사이에 삽입된 광고나 여타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

3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점연구 연구·교육 연계과제 <디지털아카이브와 한국 근현대 잡지>(AKSR2022-RE12)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연세대학교 기독교 고잡지컬렉션, 서울대학교 디지털컬렉션(고문헌-고잡지), 이화여자대학교 고문헌컬렉션, 현담문고(구 아담문고),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한국잡지협회 고잡지DB,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원 등이 제공하는 한국 근현대 잡지 가운데 5,138권의 서지사항을 엑셀로 정리했다. 해당 과제에서 구축한 결과물 기준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대상 시기에 해당되는 잡지만 추려 보아도 250여 종 1,280여 권이다.

40)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없는 잡지 자료는 제외하였다. 예컨대 고려대학교 도서관 <귀중서(연속간행물)>은 고려대학교 내에서만 온라인 원문 열람이 가능하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경우, 연세대학교 도서관 제공 <기독교 고잡지>는 외부에서 원문 이미지 열람이 가능하지만 그 외 소장 잡지는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문헌 자료이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일 5책만 열람 가능하다. 열람 자료 촬영은 사유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일부 페이지만 촬영 가능하다.

4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獎産社 발행 『實生活』 잡지의 경우 잡지내 수록된 개별 기사 단위로 온라인 이미지가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본인은 『實生活』 조사 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열람 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다. 아래는 본 연구의 대상 잡지 목록이다.

(표 4) 연구 대상 근현대 잡지 14종

잡지명	발행소	검토본 출처	수량 (권)	검토본 발행 연도
開闢	開闢社	현담문고	4	1934~1935
別乾坤	開闢社	국사편찬위원회,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18	1932~1934
批判	批判社	국회도서관, 서강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7	1932~1937
四海公論	四海公論社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26	1935~1937
三千里	三千里社	고려대, 국편, 국회도서관, 서강대	42	1932~1937
新家庭	新東亞社	고려대, 현담문고	45	1933~1936
新東亞	新東亞社	국중도, 서강대	15	1932~1935
新世紀	新世紀社	국회도서관, 서울대, 현담문고	12	1934~1937
新女性	開闢社	고려대, 서강대	17	1932~1934
新朝鮮	新朝鮮社	고려대, 국중도	10	1934~1936
實生活	獎産社, 實生活社	고려대, 국회도서관	39	1932~1937
女性	朝鮮日報社 出版部	서강대, 현담문고	34	1936~1937
朝光	朝鮮日報社 出版部	국중도, 서강대	30	1935~1937
中央	朝鮮中央日報社	국중도, 서울대	23	1933~1936

이 외에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에서 발행한 학회지 『朝鮮と建築』 제16집 제12호 (1937년 12월) 「株式會社和信本館新築工事概要」 기사에는 1937년 11월 11일 완공한 화신백화점 신관의 층별 도면과 대지위치, 대지면적, 층별면적, 건축양식, 내외부 마감,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에, 1937년 화신백화점 공간을 확인하고 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연구 대상에 추가하였다.⁴²⁾

42) 해당 호는 국회도서관 협정 기관 방문 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서는 실물 자원 열람이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연세대학교에서 실물 자원을 확인하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잡지의 소장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현담문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등 총 6 곳으로 근현대 잡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 연구 대상 잡지 소장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서비스	온라인 열람	원문 이미지	원문 텍스트	목차 제공	이미지 다운로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	△ ⁴³⁾	○	X	○	○
국회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	○	X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잡지자료>	○	일부	일부	○	X
현담문고(구 아단문고)	○	○	X	X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고문헌/잡지/국내 간행 잡지(일제강점기)	○	○	X	X	X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	○	X	X	○

잡지 기사 내에서 화신백화점 관련 정보를 얻는 작업 프로세스는 먼저 ①개별 호 수별로 서비스되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확인한 후 ②온라인 잡지를 열람하여 ③전체 페이지를 검토하고 ④화신백화점 유관 기사를 찾아낸 후 ⑤목차 및 판권지를 참고하여 서지사항을 정리하고 ⑥원문 및 현대어 번역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잡지 14종을 살펴본 뒤 추가로 『朝鮮實業俱樂部』와 같은 협회지, 『人文評論』, 『朝鮮文學』과 같은 문예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 신문

본 연구의 시간적 대상 범위인 1932년 7월 16일부터 1937년 11월 10일 사이에 발행된 신문 가운데 지방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高麗時報』, 『共立新報』, 『釜山日報』, 『朝鮮時報』, 『滿鮮日報』를 제외⁴⁴⁾한 민간지로는 『朝鮮日報』,

다.

43) 일부 자료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협약 도서관 지정 PC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東亞日報』, 『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⁴⁵⁾, 『朝鮮新聞』이 있으며, 총독부 발행 기관지로는 『每日申報』 『京城日報』, 『國民新報』 등이 있다. 신문의 경우 신문별 성격에 따라 기사에 의도가 반영되기에 복수의 신문과 민간지 및 기관지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 연구 대상 신문

구분	신문명	발행언어	검토범위	기사 제공 디지털 아카이브
민간지	조선일보	한글	1932.7.16~ 1937.11.10	조선일보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⁴⁶⁾ , NAVE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⁴⁷⁾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일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⁴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⁴⁹⁾
	중앙일보		1932.7.16~ 1933.3.6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중앙일보		1933.3.7~ 1936.9.4	
	조선신문	일본어	1932.7.16~ 1937.11.10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기관지	매일신보	한글	1932.7.16~ 1937.11.10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공훈전자자료관 <원문사료실> ⁵⁰⁾
	경성일보	일본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신문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키워드 검색을 매개로 화신백화점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동아

44)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종로 화신백화점 관련 기사를 살펴볼 경우, 『고려시보』에는 화신 개성 지점에 대한 기사 1건이, 『만선일보』에도 화신 봉천 지점 관련 기사 1건이 실려있다. 『부산일보』에는 화신 연쇄점과 화신상회 지점 관련 기사가 실려있으며, 『조선시보』에도 화신연쇄점 관련 기사 및 화신 만년필 광고가 수록되어 있다. 『공립신보』에는 화신 관련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45) 1933년 3월 7일 발행.

46) 조선일보 제공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47) NAVER 제공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48) 동아일보 제공 <동아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49)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동아일보). (<http://db.history.go.kr/>)

50) 공훈전자자료관 제공 <원문사료실>(매일신보). (<https://e-gonghun.mpva.go.kr/user/1ndepMeritsDataList.do>)

일보 기사는 현재 <동아디지털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 세 곳의 아카이브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키워드 검색 결과값에 있어 <동아디지털아카이브>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차이가 있는데,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결과값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확인된다.⁵¹⁾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는 검색 결과값의 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웹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짐작된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기사 제목과 표제어를 대상으로 한 n-gram 기반 검색 시스템인 반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제목 및 내용을 대상으로 한 n-gram 기반 검색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두 사이트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값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아카이빙되어 있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어로 출력되지 않는 기사가 존재했다. 동일한 언론사의 동일한 기사 자료를 아카이빙한 웹 사이트들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검색 시스템이 상이하고 아카이빙 대상 판본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얻고자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교차해서 살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7)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자료 검토 시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비교

아카이브 명칭	제공 기간	회원 가입	원문 열람	원문 확대	원문 저장	원문 텍스트 제공	한글 변환본 제공	현대어제공	텍스트 복사	광고 텍스트제공
동아디지털 아카이브	1920.4.1 ~현재	○	결제 시 가능 ⁵²⁾			○	○	X	X	X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1920.4.1 ~1962.12.29	X	무료	○	○	X	X	X	-	X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20.4.1 ~1999.12.31	X	무료	○	X	○	○	X	X	제목, 발행처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1920.3.5. ~1999.12.31	X	무료	△ ⁵³⁾	○	○	○	○	○	제목

51) 예컨대 “龍岡에도水災同情”, 『동아일보』, 1922. 9. 29.석(4).” 기사는, “박흥식”으로 검색 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마다 신문에 실린 광고를 온전히 디지털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이를 교차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신문 광고는 짧은 광고 문구 외에도 해당 광고를 발행한 주체 및 광고 대상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모든 신문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광고의 내용 전체를 온전하게 텍스트화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관련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광고 기사에 대한 텍스트는 제공하지 않으며,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100>의 경우에는 광고 제목만 디지털 텍스트화하여 제공하고 광고 발행 주체나 광고 기사 내 추가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하지 않았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 제목과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텍스트로 제공해 주고 있다.⁵⁴⁾ 즉, 신문에 수록된 광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온전하게 살펴보아야 할 경우,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원문 이미지를 일일이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 문예 작품

화신백화점은,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신문이나 잡지 수록 기사 외에도 수필과 소설 등 문예적 성격의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소설은 사실이 아닌 서술자의 허구적 세계를 다루는 창작물이지만, 작가의 실제 체험이나 당대 현실이 소설 속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⁵⁵⁾, 작품 속에 서술된 화신백화점 유

52) 지면 한 장당 500원을 결제해야 하며, 결제 후 pdf 다운이 가능하다.

53) 원문 확대는 가능하나, 화질이 낮아지고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54) 『조선일보』의 경우 “『旧歲暮大廉賣市』, 『조선일보』, 1932. 1. 20.석(7).” 기사를 예로 들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광고의 주 제목(旧歲暮大廉賣市)과 광고 발행사(株式會社和信商會)에 대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100>에서는 광고의 주 제목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和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조선일보 뉴스 라이브러리 100>에서는 해당 광고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 『동아일보』의 경우, <동아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광고 기사의 경우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아카이브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광고에 접근할 수 없다. (기사 예: 『織物販賣經歷者募集』, 『동아일보』, 1938. 6. 6(2).)

55) 예를 들어 1932년 발표된 이북명(李北鳴)의 소설 「질소비료공장」에는 1930년대 식민지 산업화와 노동자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북명은 1927년 함흥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후 1930년까지 함경남도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실제 흥남 질소비료공장에서는 저임금, 차별대우, 열악한 노동조건, 일본인 감독의 학대 등이 원인이 되어 파업 투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현실이 작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인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관 묘사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화신백화점을 바라보던 다채로운 문화적 시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문 기사와 잡지, 단행본 등에 실린 소설과 수필을 통해 당대 화신백화점의 풍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작품을 선정한 구체적 논리는 1932년 7월부터 1937년 11월 사이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 명확하게 ‘화신백화점’이 등장하거나, ‘W백화점’과 같이 화신(Whashin) 백화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8) 화신백화점이 언급된 문학 작품 예시

분류	작가	작품명	발표 연도	매체 유형	매체명
소설	염상섭	백구(白鳩)	1932~1933	신문	조선중앙일보
소설	이광수	흙	1932~1933	신문	동아일보
수필	김기림	봄의 전령	1933년	신문	조선일보
소설	현진건	적도(赤道)	1933~1934	신문	동아일보
소설	윤백남	추풍령(秋風嶺)	1933~1934	잡지	신동아
소설	안석주	病室에	1934	신문	조선일보
소설	강경애	인간문제	1934	신문	동아일보
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	신문	조선중앙일보
소설	이태준	점경	1934	잡지	중앙
소설	심훈	직녀성	1934~1935	신문	조선중앙일보
수필	김기림	그 봄의 전리품	1935	신문	조선일보
소설	이무영	먼동이 틀 때	1935	신문	동아일보
소설	한설야	황혼(黃昏)	1936	신문	조선일보
소설	이태준	장마	1936	잡지	조광
소설	박태원	천변풍경	1936~1937	잡지	조광
소설	김말봉	짚레꽃	1937	신문	조선일보

라. 영화를 포함한 동영상 자료

1930년대 종로 화신백화점의 내외부 공간을 담고 있는 동영상 자료는 매우 소략한 편이나 당대 공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원이라 할 수 있다. 동영상 자료는 크게 화신백화점 외관 기록과 화신백화점 내부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개봉일을 기준으로 1930년대에 개봉하거나 발표된 영화를 중심적인 대상 자

원으로 삼았으며, 여타 자료를 통해 촬영 시기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촬영 연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미몽〉(1936년 개봉): 아동복 매장



〈미몽〉: 식당

【이미지 1】 1930년대 동영상 자료에 등장하는 화신백화점

3) 유관 선행연구: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그동안 화신백화점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 경영사, 기업사, 상업사, 문화사(소비·사회·도시·대중문화), 미술사, 건축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왔다. 대부분의 연구가 경성에 소재한 근대백화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화신백화점만을 단독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소략하며, 화신백화점의 성장과 발달사를 통시적으로 정리하거나 시기 구분 없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편적인 사건이나 자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본 연구와 같이 1930년대(1932년 7월부터 1937년 11월 사이)의 화신백화점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화신백화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종다양한 연구 가운데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시기의 화신백화점을 상세하게 다룬 연구를 거론해볼 경우, 먼저 화신백화점의 경영 전략과 경영 과정 그리고 화신백화점 경영진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을 추적한 연구⁵⁶⁾를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경성에 진출한 일본 백화

56)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오진석,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의 성장과 변모 : 朴興植의 和信百貨店 경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오진석, 앞의 논문(2002), 93~151쪽.; 오진석,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엄복규, 「민족과 욕망의 랜드마크-박흥식과 화신백화점」, 『도시연구』, 제6호, 2011, 43~71쪽.;

점과의 경영 전략 비교를 통해 화신백화점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⁵⁷⁾ 한편, 건축가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이 설계하고 1937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화신백화점의 특징에 주목한 연구도 있는데, 화신백화점의 외관 건축양식과 보존 가치에 대해 다룬 연구⁵⁸⁾와 실내 공간의 특성을 정리한 연구⁵⁹⁾가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화시설로서 화신백화점의 기능 및 역할을 다룬 연구⁶⁰⁾와 화신백화점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관해 논의한 연구⁶¹⁾도 확인된다.

이상의 여러 연구는 기본적으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각각의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둔 내용을 발췌-정리해 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연구자마다 각기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그것을 위한 논증에 초점을 두고 유관 자료나 기록을 수집해 그에 관한 설명을 서술-제시하는 형식이다. 특정한 연구 주제나 담론을 논증해야 하는 논문의 기본 목적이거나 논문이 지닌 형식적 특징을 고려할 때 그러한 맥락의 연구 접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애초 자료에 충실한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소거되는 자료의 맥락이 많은 상황을 떠올려보면 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논문 작성’이라는 기존 인문학 연구 형식이 본질적으로 내포한 한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료에 더 집중해서 유관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엄밀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제시하는 연구들이 분명히

정안기, 「1940년대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조선비행기공업(주)」, 『경영사연구』, 제30집 제4호, 2015, 197~226쪽.

57)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노혜경, 「화신백화점의 성공과 역사문화적 배경」, 『경영사연구』, 제33권 제3호, 2018, 43~71쪽.; 이상혁, 「일제강점기 한·일 백화점 기업의 성장 과정과 지배구조 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5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그에 해당한다. 안정연·김기호, 「화신백화점의 보존논의와 도시계획적 의미」, 『한국 도시설계학회지』15-6, 2014; 안정연, 「도시계획에서 역사환경 보존 인식 변화 : -서울 종로2가 ब्ल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안정연, 「화신백화점의 보존 논의와 도시계획」,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 :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2021.

59) 오인옥, 「한국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2호, 2007, 13~23쪽.

60) 전시 공간으로서 화신백화점을 다룬 대표적 연구로는 ‘목수현,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2009, 97~116쪽.’과 ‘손영옥, 「한국 근대 미술시장 형성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가 있으며, 손영옥(2015)의 논문을 보완한 단행본으로 ‘손영옥, 『미술시장의 탄생 - 광통교 서화사에서 백화점 갤러리까지』, 푸른역사, 2020.’도 있다.

61) 화신백화점 등장 이후 발생한 절도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로 ‘손정숙, 「일제시기 백화점과 일상소비문화」, 『동양고전연구』, 제25집, 2006, 237~260쪽.’이 있다.

있다. 자료에서 출발하지 않는 연구는 없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자료에 파고드는 연구는 흔치 않음을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연구는 실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의 디지털 기술만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연구 대상으로서 기초 자료나 그것을 데이터로 가공하는 개념이나 지향점을 분명히 내포한 소위 ‘데이터 기반’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가 내포한 문제의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성격의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이 적지 않은데, 경성에 소재한 근대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하단의 세 연구가 해당 맥락에서 유효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오진석⁶²⁾은 식민지기 백화점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판매관리, 구매·재고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의 경영 방식을 고찰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린 수필, 일기, 인터뷰 기사 등을 토대로 백화점의 등장이 백화점 경영진·점원·소비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의 주목할 만한 지점은 개인의 일상이나 내밀한 심경이 드러나는 기록을 사료로 수용하여 백화점 관계인들의 생활과 그로부터 드러나는 의식적 특질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다종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도시인들의 삶에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관계인들의 생활양식을 재구성하고자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뚜렷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⁶³⁾

박은영⁶⁴⁾은 1920~30년대 신문과 잡지에 실린 백화점 및 조선인 상점의 쇼윈도가 기록된 기사·사진·삽화 등을 토대로 당대 백화점과 조선인 상점 쇼윈도의 특징과 상품 진열 전략을 분석하였다. 백화점과 관련해서 해당 연구는 판매 상품과 여종업원 그리고 쇼윈도 자체가 당대 도시인들에게 시각적 소비의 대상으로 기능했음을 밝히고, 나아가 백화점 쇼윈도로 인해 생겨난 문화 현상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인 상점에 비해 백화점 쇼윈도에 대한 내용은 소략하고 다종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쇼윈도에 대한 기사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

62) 오진석, 앞의 논문(2004).

63) 관련하여 해당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하위 관리자에 의한 점원의 고충과 소비자의 소비 행태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어난 다양한 범죄 사건 등을 추가한 연구로 ‘오진석, 『대중매체를 통해 본 1930년대 백화점의 일상』, 부산근대역사관, 『백화점, 근대의 별천지』, 부산근대역사관, 2013.’이 있다. 다종다양한 기록을 통해 1930년대 경성 백화점에서 활동했던 경제주체들의 일상과 의식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64) 박은영, 『1920~1930년대 경성의 쇼윈도: 신문·잡지 자료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 43호, 2016, 87~112쪽.

를 촘촘하게 엮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최지혜⁶⁵⁾는 1920~30년대 경성 내 미츠코시, 조지야, 화신백화점에서 발행한 층별 안내도를 바탕으로 당시 경성 주요 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고 추정되는 물품과 신문 및 잡지 광고 등에서 많이 다루어진 물품들을 선정하여 개별 물품의 내력을 밝혔다. 물품 조사에 있어 논문이나 단행본, 도록, 웹 자원 등 2차 자료도 참고하였으나,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및 광고와 수필과 소설 등의 문학 작품 그리고 그림, 사진, 포스터, 광고지, 책자 등 방대한 양의 1차 자료를 토대로 개별 물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고고학적 작업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다종 다양한 자료를 미시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고 이를 한데 엮어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백화점에서 유통되었던 백화(百貨)를 통해 당대 소비문화와 일상 풍경을 재구성하고 살펴보려고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의 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논문’이라는 글쓰기 미디어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유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자 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해당 연구들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근대기 백화점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그것들 사이에 얽힌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부할 수 있다면, 근대 백화점을 매개한 새로운 시각과 그에 관한 구체적 지식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사점에 주목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근대 백화점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근대기 백화점을 다루고자 한 연구나 유관 시도는 없었을까?

아쉽게도 현재 화신백화점을 구체적 대상으로 한 본격적 디지털 아카이브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⁶⁶⁾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아날로그 환경에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발간한 서적으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0일에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65) 최지혜, 『경성 백화점 상품 박물관』, 혜화1117, 2023.

66) 현재 화신백화점 외 여타 백화점을 대상으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나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개별 백화점에서 백화점의 기업사를 디지털 연표로 정리해 제공하거나, 개별 아카이브 기관에서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화점 기록물을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축하거나, 지역 아카이브에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거나 위치했던 백화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열린 기획전시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도록⁶⁷⁾이 있다.⁶⁸⁾ 해당 도록은 화신백화점에 대한 기록물, 화신백화점에서 판매·유통되었던 물품 그리고 유관한 학술 논문을 한데 모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도록에 수록된 다채로운 정보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근대기 백화점에 대한 파편화된 정보를 아날로그 환경에서 선별적으로 정리 및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백화점이 품고 있던 생활-문화의 다채로운 외연을 입체적으로 파악-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백화점에서 유통되었던 전단지·팸플릿·상품과 근대 신문 및 잡지 등의 문헌 자료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소설과 같은 문예적 성격의 작품 또한 대상 자료로 삼아, 당시 백화점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백화점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정리하는 아카이빙 과업이 아니라, 백화점을 매개한 당대 사람들의 경제-생활-문화 활동의 지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종합적 단서를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1930년대 문화 공간으로서 경성의 일면을 해부해보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에 가깝다.

3. 연구 방법

(※ 추후 온전히 정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은 크게 데이터 수집 및 편찬과 데이터 큐레이션과 분석 및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나눌 수 있다.

1) 데이터 수집 및 편찬

① 온라인 공간에서 유관 자료 수집: 기존 아카이브 탐색 및 활용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일차적으로는 여러 키워드를 조합한 검색을 매개로 종

67)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2021.

68) 화신백화점 관련 전시 도록으로는 2013년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부산근대역사관에 서 열린 특별기획전 <百貨店, 근대의 별천지> 도록이 있다. 해당 도록은 화신백화점을 포함하여 1920~30년대 전후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여러 백화점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기록과 실물 자원을 담고 있다.(부산근대역사관, 『百貨店, 근대의 별천지』, 부산근대역사관, 2013.)

로 화신백화점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아카이브마다 검색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키워드 검색 결과값이 다르기에 검색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예로 들자면, 한자명 ‘和信’의 음가(音價)인 ‘화신’으로 검색 시 더 포괄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나 ‘화신’만으로 종로 화신백화점 유관 기사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대 광고는 우횡서(右橫書)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 아카이브 구축 시 데이터 입력자가 우횡서 그대로 제목과 본문 텍스트를 입력하여 ‘화신(和信)’이 아닌 ‘신화(信和)’로 검색해야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으며,⁶⁹⁾ 광고 내 문자의 형태적인 요소가 입력 텍스트에 반영되어 ‘신 화(信 和)’ 또는 ‘화 신(和 信)’과 같이 띄어쓰기를 해야 검색 결과에 반영되는 기사들이 있다.⁷⁰⁾ 또한, ‘화신’ 앞뒤에 붙은 조사나 형태소를 함께 입력해야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존재한다.⁷¹⁾

[표 9] 기사 수집을 위한 검색 키워드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디지털아카이브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키워드	화신, w백화점, 信和, 信 和, 백회점, 화신칠계, 화신칠층	和信, w백화점, 백회점, 화신칠계, 화신칠층	화신, w백화점, 백회점	和信, whashin,

아카이브에서 기사 추출 시 스크래핑(scraping)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접목해 대상 자료를 자동으로 목록화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있어 다수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교차해 살펴보았으나, 키워드 검색 결과만 수집했기에 본 연구에서 정리한 기사가 화신백화점에 대한 온전한 기록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② 수집한 자료 정리: 추상화하는 시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4,421건의 기사를 수집한 후 개별 기사를 하나씩 읽어 가

69) 예: 1937년 5월 21일 『조선일보』 석간 7면 8단에 실린 광고. (URL: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7052100239207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7-05-21&officeId=00023&pageNo=7&printNo=5752&publishType=00020>)

70) 예: 1937년 9월 11일 『조선일보』 조간 11면 8단에 실린 광고. (URL: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709110023910302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7-09-11&officeId=00023&pageNo=3&printNo=5865&publishType=00010>)

71) ‘화신칠계’, ‘화신칠층’, ‘화신일계’, ‘어화신(於화신)’ 등의 키워드가 이에 해당한다.

며 종로 화신백화점을 가리키는 ‘화신’의 의미가 아니라 동음이의어로 검색되는 기사⁷²⁾와 화신연쇄점 혹은 화신백화점 분점에 관한 기사를 제외한 총 2,186건의 기사를 확보하였다. 이후 해당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의 출처 정보를 정리하고 서로 다른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기사는 단일 기사(Article)로 연결하였으며, 일자, 요일, 수록 면, 단, 제목, 부제 등 기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였다.

③ 정리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 추출: 온톨로지 디자인

정리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연구에 있어 이를 마련하는 기준은 온톨로지(Ontology)⁷³⁾이다. 온톨로지 디자인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여러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Web Ontology Language(OWL) 문법을 따라 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기술해야 한다. 섬세한 온톨로지 설계와 귀납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다종다양한 정보들이 정교하게 정리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보와 정보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층위의 관계망이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재현될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한다.

④ 추출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편찬: 표준적 형식의 데이터 구축

2) 데이터 큐레이션과 분석 및 시각화

⑤ 편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큐레이션: 질적 차원의 접근

⑥ 편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 양적 차원의 접근

72) 예: 和新商店, 華信商會, 和信群山配給所, 畫伸, 化申, 和神, 化辰 등

73) 온톨로지(Ontology)는 대상을 분류하고 대상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기술 체계로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온톨로지(ontology)는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로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러한 용어가 정보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과 컴퓨터가 정보화 대상(콘텐츠)을 이해하는 틀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개념들 또는 그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이다. 다시 말해, 정보 기술 용어로서의 온톨로지는 ‘정보화 대상이 되는 분야의 기본 개념과 그 개념들 간의 상관 관계를 정리한 명세서’를 의미한다.” -김현·김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 BOOKS, 2016, 164쪽.

⑦ 편찬된 데이터의 시각화: 질적-양적 차원의 정보 시각화

3) 데이터 개방과 공유

⑧ 편찬된 데이터의 개방: 웹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반 아카이브 구현 및 데이터셋 공개

Ⅲ.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1.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 개요

본 연구는 종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인문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정교하게 정리해서 아카이빙하고 시맨틱 데이터를 편찬함으로써, 흩어져 존재하는 유관 정보와 지식들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다종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의 데이터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의 대상으로서 ‘종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기록물은 내용과 형식의 양태가 무척 다양하다. 복잡다단한 대규모 분량의 기록에 담긴 수많은 갈래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얹혀있는 ‘종로 화신백화점’의 세계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데이터 형식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를 설계하고 편찬해야 한다.⁷⁴⁾

시맨틱 데이터란 웹 기반의 온톨로지(Ontology)와 XML, RDF, RDFS, OWL 등의 시맨틱 웹 언어로 기술된 Triple(S-P-O) 형식의 데이터를 가리킨다. 시맨틱 데이터는 개별 노드와 노드 데이터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들여다보기에 최적화된 체계로서, 연구 대상이 지닌 개별 지식 요소를 고유한 데이터로 편찬하고 데이터 사이의 의미적 관계 또한 데이터로 치환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출력해 살펴볼 수 있다. 예컨

74) 시맨틱 데이터 편찬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김현·안승준·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1(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39쪽.; 장문석·류인태,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문학사연구』 7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360쪽.

대 Triple 형식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⁷⁵⁾를 구축할 경우, 스파클(SPARQL, 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과 같은 질의 언어를 이용해 사실의 추론이 가능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질의어를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식 요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웹상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과 유관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과 관련된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탐구 주제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근대기 자료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실물 자료의 규격 및 재질과 같은 가시적 문헌 형식을 기초 학술 정보로 정리해 디지털화하여 제공할 뿐, 실제 해당 자료가 생산·유통·사용된 맥락이나 그에 담긴 인문 지식에 관한 의미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시맨틱 데이터, 즉 웹 기반의 온톨로지와 시맨틱 웹 기술에 근거한 데이터 처리 방법론이 근대기 자료를 다루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용될 경우 단일 기관의 소장 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 소장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계를 넘어 수많은 개별 아카이브의 정보가 의미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검색이 가능해지며, 의미적 관계에 따라 하나의 스토리를 갖는 지식 정보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관 자료를 다루는 연구자는 더욱 정교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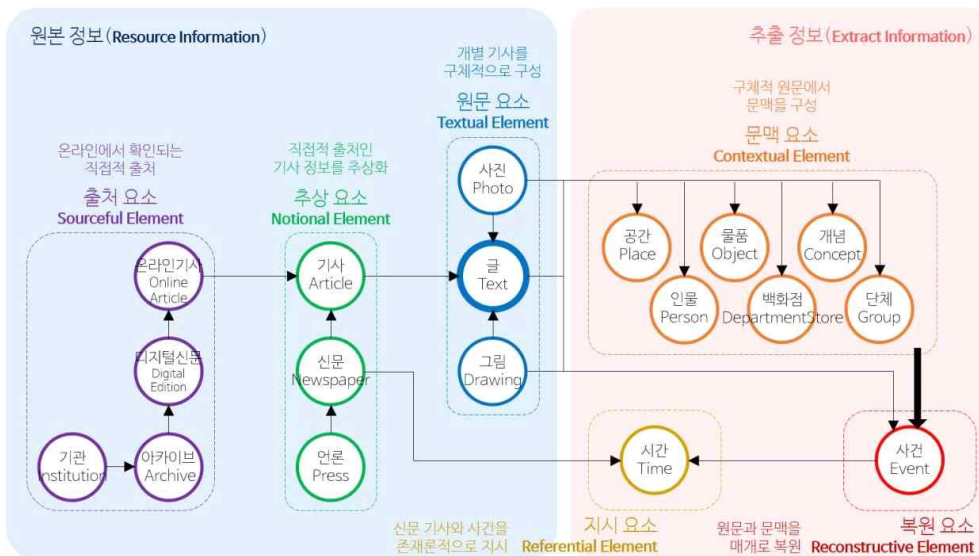
2. 화신 백화점 데이터 기술 체계의 밑그림

(※잡지와 동영상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종로 화신백화점에 관한 복잡한 정보를 데이터로 재현하기 위한 기초 디자인 작업으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은 물리적 현실의 대상을 분절하여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재현(represent)하기 위한

75) 링크드 오픈 데이터는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웹 상에 존재하는 유관한 디지털 자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인터넷상에 유관한 자원들로 엮인 광대한 의미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다. - 김현 외, 위의 책, 194~195쪽 참조.

설계도로서 데이터 모델(data model)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⁷⁶⁾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대상 자원을 여러 층위의 개체(entity)로 분절하고 그 과정에서 개체들 가운데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범주인 ‘클래스(Class)’ 및 개체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정의해 주는 ‘관계(Relationship)’ 그리고 개별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의 공통된 ‘속성(Attribute)’을 설계함에 있어 데이터 기초 체계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⁷⁷⁾ 현 단계에서의 연구는 클래스와 관계의 기초적 설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속성 디자인은 현재 정리 중이며 추후 보완된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지 2】 종로 화신백화점 관련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 체계의 밑그림

76) 김지선·류인태, 「여향문화 연구와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연구』 85, 한국한문학회, 2022, 85쪽 참조.

77)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은, ①데이터로 옮기고자 하는 현실의 대상을 개념적 차원에서 디자인하는 과정으로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②개념화된 모델을 논리적 차원에서 상세화하는 과정으로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③논리화된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3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기초 단계의 절차로서 핵심 개체(entity)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 및 속성(attribute)을 발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의 전반적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상화 수준이 높고 포괄적 차원에서 고려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 모델을 상세화하기 이전에 전체 시스템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모델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김지선·류인태, 위의 논문, 86쪽 각주 7번.

종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시맨틱 데이터 기술 체계는 크게 원본 정보(Resource Information)와 추출 정보(Extract Information)로 나눌 수 있다. ‘원본 정보’는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자료 수집 행위와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의 기준에 맞춰 분류 및 정리한 기초 연구 자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출 정보’는 연구 목적에 맞춰 일차적으로 정리한 연구 대상에서 추출한 정보 요소들이다.

‘원본 정보’는 여러 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디지털화한 자료를 대상으로 구축된 아카이브를 연구 대상 자원과 연결하고 정리함으로써 추후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이 원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고 웹에서 기관들이 구축해 놓은 아카이브 자료를 편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특징을 보여준다.

‘추출 정보’는 글감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리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extract)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연구에 있어 이를 마련하는 기준은 온톨로지(Ontology)이다. 온톨로지에는 연구자의 관점이 필연적으로 반영되고 그에 맞춰 중요하다 여겨지는 글감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⁷⁸⁾

원본 정보는 다시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확인되는 직접적 출처로서의 ❶출처 요소(Sourceful Element), 직접적 출처인 기사 정보를 추상화한 ❷추상 요소(Notional Element), 개별 기사를 구체적으로 구성한 ❸원문 요소(Textual Element)로 구성된다.

❶‘출처 요소’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실물 자료가 아닌 웹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웹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록물들과 그 기록물들의 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❷‘추상 요소’는 출처 요소로서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원본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78) 관련하여 다음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데이터(data)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텍스트에 내포된 내용·형식상의 중요한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진행된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정보들이 데이터의 범주(classification)와 속성(property)으로 디자인되고, 그와 같은 개념적 모델은 데이터 스키마(schema) 형식으로 구체화 되어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듭 거친다. 이 과정은 분명 읽기가 중심이지만 형식화되는 매개는 ‘데이터 기술(data description)’ 즉 쓰기라는 측면에서, 아날로그 환경의 읽기-쓰기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이질적 경험이라 하겠다.” - 류인태, 「데이터로 고전을 읽는다는 것」, 『고전문학과 교육』 5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47쪽.

연구 대상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분류하는 추상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기사는 단일 기사(Article)로 묶고 단일 기사는 그 상위 요소인 신문(Newspaper)과 개별 일자의 신문은 다시 언론(Press)으로 정리함으로써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분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㉓ ‘원문 요소’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사’를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개별 기사 원문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형식을 정리한 것이다.

‘추출 정보’는 ①문맥 요소(Contextual Element), ②복원 요소(Reconstructive Element), ③지시 요소(Referential Element)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문맥 요소’는 원문 요소의 문맥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의미한다. 문맥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들 가운데 무엇을 데이터로 편찬할지는 온톨로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일반적으로 문맥 요소는 고유명사에 해당하나, 일반명사 또한 추후 그 정보를 활용해 분석하거나 큐레이션 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구 주제나 맥락에 맞춰 문맥 요소로 추출할 수 있다.

②‘복원 요소’는 ‘원문 요소’와 ‘문맥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합해서 재구성한 정보 요소로, 객관적 성격의 ‘문맥 요소’와는 달리 데이터의 선정 및 정리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상대적으로 주관적 성격의 데이터에 가깝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방향은 종로 화신백화점 유관 기록을 통해 백화점의 문화경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때의 백화점은 다양한 사람과 물품 그리고 사건이 관여한, 다양한 생활 문화적 맥락이 함축된 공간이다. 그 맥락을 다각도로 들여보기 위해서는 사건(Event)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건은 기사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보다 여러 ‘원문 요소’의 문맥을 통해 재조직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문맥 요소’와 차이가 있다.

③‘지시 요소’는 연월일 형식의 시간(Time) 데이터를 담기 위해 설계된 틀이다. 시간은 존재론적으로 모든 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해 연결할 수 있으나, 신문과 사건 두 가지 요소에만 환원하였다. 신문은 연월일 기준으로 명확한 정보를 갖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록으로서의 신문 정보에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또한 시공간을 전제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문맥 요소’의 공간(Place)과 더불어 시간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tial’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신문’이 이때 간행되었고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맥락

의 지시를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종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원본-추출 정보의 구도는 곧 데이터의 가장 기초적인 윤곽에 해당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술 체계의 기초 맥락을 토대로 하여 데이터를 섬세하게 편찬한다면 종로 화신백화점과 관련된 다채로운 정보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온톨로지 설계

1) 클래스(Class) 및 속성(Attribute, DataProperties) 설계

위와 같은 데이터 기술 체계의 밑그림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범주화한 클래스는 총 18가지이다. 기본적인 클래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0] 데이터 클래스(Class) 항목

Online Article 온라인 기사	Name	jwd:OnlineArticl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OnlineArticle
	Comment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로 화신백화점 유관 기사
Digital Edition 디지털 신문	Name	jwd:DigitalEdi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jwd#DigitalEdition
	Comment	온라인 기사가 수록된 개별 일자의 신문
Archive 아카이브	Name	jwd:Archiv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Archive
	Comment	디지털 신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
Institution 기관	Name	jwd:Institu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jwd#Institution
	Comment	아카이브 운용 기관
Article 기사	Name	jwd:Articl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Article
	Comment	동일한 온라인 기사를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의 기사
Newspaper 신문	Name	jwd:Newspaper
	URI	http://dh.aks.ac.kr/ontology/jwd#Newspaper
	Comment	기사가 수록된 추상적 개념의 개별 일자의 신문

Press 언론	Name	jwd:Press
	URI	http://dh.aks.ac.kr/ontology/jwd#Press
	Comment	개별 일자의 신문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의 언론
Text 글	Name	jwd:Text
	URI	http://dh.aks.ac.kr/ontology/jwd#Text
	Comment	기사에 실린 글
Photo 사진	Name	jwd:Photo
	URI	http://dh.aks.ac.kr/ontology/jwd#Photo
	Comment	기사에 삽입된 사진
Drawing 그림	Name	jwd:Drawing
	URI	http://dh.aks.ac.kr/ontology/jwd#Drawing
	Comment	기사에 삽입된 그림
Department Store 백화점	Name	jwd:DepartmentStor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DepartmentStore
	Comment	백화점 및 백화점을 구성하는 부서, 건물, 층, 편의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행위의 주체(Agent)이자 공간(Place)으로 기능함
Person 인물	Name	jwd:Person
	URI	http://dh.aks.ac.kr/ontology/jwd#Person
	Comment	글·사진·그림에 직접 언급되거나 나타나는 요소로서의 인물
Group 단체	Name	jwd:Group
	URI	http://dh.aks.ac.kr/ontology/jwd#Group
	Comment	글·사진·그림에 직접 언급되거나 나타나는 요소로서의 단체
Place 공간	Name	jwd:Plac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Place
	Comment	글·사진·그림에 직접 언급되거나 나타나는 요소로서의 공간
Object 물품	Name	jwd:Object
	URI	http://dh.aks.ac.kr/ontology/jwd#Object
	Comment	글·사진·그림에 직접 언급되거나 나타나는 요소로서의 물품
Concept 개념	Name	jwd:Concept
	URI	http://dh.aks.ac.kr/ontology/jwd#Concept
	Comment	글·사진·그림에 직접 언급되거나 나타나는 요소로서의 개념
Event 사건	Name	jwd:Event
	URI	http://dh.aks.ac.kr/ontology/jwd#Event
	Comment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요소
Time 시간	Name	jwd:Time
	URI	http://dh.aks.ac.kr/ontology/jwd#Time
	Comment	연월일 기준의 시간 정보

(1) 출처 요소로서의 클래스

가. 온라인 기사(OnlineArticle)

‘온라인 기사(OnlineArticle)’ 클래스는 1932년 7월 16일부터 1937년 11월 10일에 발행된 종로 화신백화점 유관 기사 중 온라인에서 해당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가진 웹 자원을 개체로 삼는다. 서로 다른 아카이브에서 제공되는 동일 내용의 온라인 기사 모두 ‘온라인 기사’ 클래스의 개별 개체로 정리했는데, 아카이브에 따라 디지털화된 기사의 원본 이미지 화질이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원문 및 한글 변환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사를 교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1] 온라인 기사(OnlineArticle)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NC1933011403
name	대표명	19330114조선일보_상품권취저액삼원으로결정?-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NC1933011403
url	웹주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011400239203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1-14&officeId=00023&pageNo=3&printNo=4207&publishType=00020
keyword	검색 키워드	화신
category_a	아카이브 제공 카테고리	경제/기사(뉴스)
error_o	원문 내용 오류 여부 -제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title -부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subtitle -본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 body -성명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credit	body
error_t	한글변환본 내용 오류 여부	body

나. 디지털 신문(DigitalEdition)

‘디지털 신문(DigitalEdition)’ 클래스는 온라인 기사가 수록된 개별 일자의 신문으로, 온라인에서 해당 일자의 신문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가진 웹 자원을 개체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문 아카이브들은 개별 일자 신문의 모든 면을 디지털화하여 발행일 기준 신문 열람과 키워드 검색 기반의 기사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개별 기사가 실린 신문의 일자와 발행유형 그리고 기사가 위치한 면과 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①아카이브에서 구축한 디지털 신문 서비스 체제를 데이터 설계에 반영하고 ②기사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 정보가 필요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기사’ 클래스를 ‘아카이브’ 클래스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온라인 기사’ 클래스의 상위 범주에 속하는 ‘디지털 신문’ 클래스를 별도로 설계하였다.

[표 12] 디지털 신문(DigitalEdition)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NC19330114
name	대표명	19330114조선일보_석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NC19330114
url	웹주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01140239203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1-14&officeld=00023&pageNo=3&printNo=4207&publishType=00020
year	년	1933
month	월	01
date	일	14
day	요일	토
type	조간/석간/특간	석간
institution_o	실물 자원 소장처	조선일보사

다. 아카이브(Archive)

‘아카이브(Archive)’ 클래스는 웹에서 디지털 신문 기사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개체로 삼는다. 개별 온라인 기사의 출처 정보로서 기능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기사의 원본 이미지만 제공해주는 아카이브⁷⁹⁾와 기사 키워드 검색⁸⁰⁾ 또는 원문 문자열 검색 결과까지 제공해주는 아카이브⁸¹⁾로 나눌 수 있다.

79) 예컨대 현담문고 <현담문고>와 국회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아카이브는 원본 이미지와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8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개별 기사마다 키워드를 인덱싱하여 해당

[표 13] 아카이브(Archive)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A001
name	대표명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A001
url	웹주소	https://newslibrary.chosun.com/

라. 기관(Institution)

‘기관(Institution)’ 클래스는 아카이브 운용 주체로서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이다. 온라인 기사-디지털 신문-아카이브로 연결되는 서비스 주체에 대한 정보를 명기해 줌으로써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표 14] 기관(Institution)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I001
name	대표명	조선일보사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I001
url	웹주소	https://www.chosun.com/

(2) 추상 요소로서의 클래스

가. 기사(Article)

‘기사(Article)’ 클래스는 서로 다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동일 내용의 온라인 기사를 하나로 묶는 추상적 개념의 기사를 의미한다. ‘온라인 기사’가 웹에서 확인 가능

키워드 또는 기사의 제목 문자열 검색을 통해 유관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81) 네이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동아일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그리고 조선일보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아카이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실체(url)를 가지고 있는 기사라면 ‘기사’는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 단위의 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사’ 클래스의 개체 목록은 곧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기사 목록과도 같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그 내용이나 형식의 성격상 ①사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 ②칼럼이나 논설 성격의 글 ③광고 ④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문예적 성격의 글 ⑤사진과 해설문(caption)으로 구성된 사진 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신문에 실린 글·사진은 모두 개별 기사 단위로 보고 ‘category’ 속성에 구체적인 성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체를 정리하였다.

[표 15] 기사(Article)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AC1933042605
name	대표명	19330426조선일보_봄에화장결발과지지는법1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AC1933042605
year	년	1933
month	월	04
date	일	26
day	요일	수
title	제목	봄에화장 결발과지지는법 1
subtitle	부제	미는녀자의생명
title_s	연재 기사 제목	봄에화장 결발과지지는법
category	기사/칼럼/광고 /소설/수필/사진	기사
page	면	5
column	단	8~9

나. 신문(Newspaper)

‘신문(Newspaper)’ 클래스는 언론사와 일자 그리고 발행 유형(조·석·특간)이 같은 ‘디지털 신문’을 하나로 묶은 추상적 개념의 신문을 뜻한다. ‘디지털 신문’이 웹에서 확인 가능한 실체(url)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라면 ‘신문’은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 단위의 개별 일자의 신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사’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신문’ 클래스

의 개체 목록이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신문 목록과도 같다.

[표 16] 신문(Newspaper)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NC19330114
name	대표명	19330114조선일보_석간-네이버뉴스라이브리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NC19330114
year	년	1933
month	월	01
date	일	14
day	요일	토
type	조간/석간/특간	석간

다. 언론(Press)

‘언론(Press)’ 클래스는 개별 일자의 ‘신문’을 포괄하는 추상적 개념의 언론을 정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언론마다 사건을 보도하는 맥락이나 표현이 다르고 기사의 소재로 선정되는 사건 또한 그 성격이 언론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다. 추후 사건을 포함한 여러 정보 요소들이 온전히 정리되면, 기사에 언급된 개체들의 비교를 통해 동일한 사건을 언론마다 어떻게 다뤘는지, 특정 언론에만 언급된 사건이 무엇인지, 언론별로 어떤 유형의 기사가 주로 실렸는지와 같은 특징적인 지점을 귀납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언론(Press)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PR001
name	대표명	조선일보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PR001

(3) 원문 요소로서의 클래스

가. 글(Text)

‘기사’를 구성하는 기초 매개들을 분절하는 가운데 정리한 정보 요소로는 글(Text), 사진(Photo), 그림(Drawing)이 있다. ‘글(Text)’ 클래스는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텍스트를 개체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이다. 단독 사진 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사는 글을 매개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글’ 클래스는 ‘문맥 요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글 클래스 개체의 속성으로서 기사의 원문과 해독문 정보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8] 글(Text)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TXAD1933021602
name	대표명	Text:19330216동아일보_구두전문절도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TXAD1933021602
original	원문	구두專門竊盜 시내리화동(梨花洞)二八〇번지 김희인(金熙仁)(一八)은 작十四일 오후七시경에 종로四정목 부근에 배회하는것을 동대문서원이 체포하여 취조한결과 지난五일화신백화점에서 시가六원 짜리구두를 훔친것을비롯하여 구두전문절도인것이판명되어방금취조중인데여죄가만흔모양이라한다
translation	해독문	구두전문절도 시내 이화동 280번지 김희인(18)은 어제 14일 오후 7시경에 종로 4정목 부근에 배회하는 것을 동대문 서원이 체포해 취조한 결과 지난 5일 화신백화점에서 시가 6원짜리 구두를 훔친 것을 비롯해 구두 전문 절도인 것이 판명되어 방금 취조 중인데 여죄가 많은 모양이라 한다

나. 사진(Photo)

‘사진(Photo)’ 클래스는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사진을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한 범주이다. 기사에 수록된 사진은 크게 기사의 글을 보조·보완하는 수단과 단독적인 사진 기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에 대한 해설문(caption)이 기재된 경우에는 ‘사진’에 부착된 정보로서 해설문을 ‘사진’ 클래스의 속성으로서 정리하여 ‘글’ 클래스와는 구분하였다.

[표 19] 사진(Photo)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PHAD1933031706
name	대표명	Photo:1932092219330317동아일보_이봄에교문을나설전 문·중등녀학생들중등편가는곳을차저서5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PHAD1933031706
caption_o	원문 해설문	상점의 녀점원들 (화신에서)
caption_t	해독문 해설문	상점의 여점원들 (화신에서)

다. 그림(Drawing)

‘그림(Drawing)’ 클래스는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그림을 데이터로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이다. ‘사진’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그림’ 또한 기사의 글을 보조·보완하는 수단으로 실리거나, 단독적인 그림 기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은 주로 광고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종로 화신백화점의 외관이나 배치도 그리고 판매 물품을 묘사한 기록으로서 중요한 정보 자원이다.

[표 20] 그림(Drawing)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DRAC19340101040
name	대표명	Drawing:19340101조선일보_조선의백화점주식회사화신상회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DRAC19340101040
caption_o	원문 해설문	.
caption_t	해독문 해설문	.

(4) 문맥 요소로서의 클래스

본 연구에서 기사의 글·사진·그림에서 추출한 문맥 요소는 백화점(DepartmentStore), 인물(Person), 단체(Group), 공간(Place), 물품(Object), 개념(Concept) 등의 항목이다. 해당 범주들은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을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이다.

가. 백화점(DepartmentStore)

‘백화점(DepartmentStore)’은 본 연구 목적에 맞춰 설계한 특수한 클래스로, 사건의 행위자(Agent)이자 사건이 일어난 공간(Place)으로서 기능하는 범주이다. 백화점을 행위자와 공간을 포괄하는 범주로 정리한 이유는, 기사 원문에 그와 같은 백화점이 지닌 특수한 맥락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기사는 당대 사람들의 사유나 관념이 반영된 미디어로서 ‘백화점에서’(공간) 이루어졌던 여러 행위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백화점이’(행위자) 무언가를 행했던 내용에 대한 기록 또한 존재하기에 그 두 가지 성격의 정보를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백화점’ 클래스의 개체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추상적이고 종합적 맥락의 백화점(DepartmentStore)으로 ‘종로 화신백화점’, ‘경성 삼월’, ‘경성 정자옥’과 같이 백화점 그 자체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부서(Department)이다. 부서는 백화점을 운영한 주체이자 백화점 내 특정 공간에 배치되었기에 공간으로서도 기능하였다. 세 번째는 백화점의 물리적 공간구획 단위로서의 ①건물(Building), 건물을 구성하는 ②층(Floor) 그리고 홀, 극장, 연결통로, 승강기 등과 같이 백화점에서 제공한 ③편의시설(Facility)이다. 마지막은 백화점의 외부 공간(outside space)으로, ‘화신백화점 앞’과 같이 백화점의 실제 공간은 아니나 랜드마크로서 백화점이 사람들의 공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관념적 공간이다.

이처럼 기사에 서술된 표현을 기준으로 개체 데이터를 정리하여 추후 다양한 요소들을 연결해 볼 경우, 당대 사람들이 화신백화점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 백화점(DepartmentStore)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D007
name	대표명	종로화신백화점사입부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D007
type	departmentStore(백화점)/department(부서) /building(건물)/floor(층)/facility(편의시설) /outsideSpace(외부)	department
address	주소	.

나. 인물(Person)

‘인물(Person)’ 클래스는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로, 해당 정보 요소를 통해 화신백화점에서 근무했던 인물과 화신백화점을 방문했던 인물 그리고 화신백화점 유관 사건 관련 인물 등 화신백화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클래스 개체를 정리한 기준은 두 가지로, ①기사에 본명으로 기록된 인물과 ②가명 또는 익명으로 기록되었어도 기사에 해당 인물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고 나이, 주소지, 본적지, 소속 등의 신상정보를 통해 고유명사로 치환할 수 있는 인물들 또한 개체 데이터로 정리함으로써 당대 군상들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했다.

[표 22] 인물(Person)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P0001
name	대표명	황병조(黃柄祚)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P0001
korname	한글명	황병조
chinname	한자명	黃柄祚
courtesyname	호	.
alias	이칭	.
type	본명/가명/익명	본명

sex	성별	남
b_year	생년	1911
d_year	몰년	.
nationality	국적	한국
origin	본관	.
abode	거주지	평안남도 대동군 남곶면 용포리 240

다. 단체(Group)

‘단체(Group)’ 클래스는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된 클래스이다. 기사에 단체를 지칭하는 고유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체 데이터를 정리 하였는데, 단체명이 당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모임’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지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체의 성격으로는 정부 기관이나 회사 등 공식·정규적 활동 주체와 범죄 조직과 같은 비공식·비정규적 활동 주체를 모두 포괄한다. ‘단체’ 클래스 개체를 통해 화신백화점과 관련한 여러 사람의 집단 활동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단체(Group)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G193210
name	대표명	화신상회농구단(和信商會籠球團)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G193210
korname	한글명	화신상회농구단
chinname	한자명	和信商會籠球團
alias	이칭	.
s_date	조직일자	193210
e_date	해체일자	.
type	agency(정부기관)/company(기업) /organization(조직)/team(스포츠팀) /gang(범죄단)	team

라. 공간(Place) 클래스

‘공간(Place)’ 클래스는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공간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범주이다. ‘공간’ 클래스는 주로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백화점을 제외한 여러 유형의 공간을 포함한다.

[표 24] 공간(Place)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PL001
name	대표명	명월관(明月館)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PL001
korname	한글명	명월관
chinname	한자명	明月館
alias	이칭	.
adress	주소	경성부 돈의동 145

마. 물품(Object)

백화점은 다종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공간이기에 기사에는 여러 유형의 물품이 언급된다. 백화점 또는 소매상점에서 취급되었던 소비 대상으로서의 상품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기부·기증품과 백화점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증정했던 경품 그리고 절도품 등 다양한 맥락의 물품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물품(Object) 클래스는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물품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틀로, 기사에 언급된 물품은 특정할 수 있는 고유한 사물이 아닌 일반명사에 해당되는 용례에 가깝다. ‘물품’ 클래스를 통해 당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소비했던 물품의 양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 물품(Object)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O001

name	대표명	복주머니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O001

바. 개념(Concept)

‘개념(Concept)’ 클래스는 글이나 사진·그림의 해설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개념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범주로, 기사에 언급된 백화점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이에 속한다.

[표 26] 개념(Concept)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C19330110
name	대표명	조선상품권취체령(朝鮮商品券取締令)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C19330110
korname	한글명	조선상품권취체령
chinname	한자명	朝鮮商品券取締令
alias	이칭	.
category	유형	law

(5) 복원 요소로서의 클래스: 사건(Event)

기사는 필자의 생각이 주가 되는 칼럼·논설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소개글,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한 글 등 그 형식이 다종다양하나, 기본적으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와 같은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서술된 글이 대다수이다. 해당 정보 요소들을 조합해 특정한 사건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필자나 언론에 따라 사건에 대한 정보나 서술 방향 그리고 보도 일자에 차이가 있기에 다양한 기사에 파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정보를 모아 그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Event)’ 클래스는 여러 기사의 문맥을 통해 재조직한 의미 요소로, 화신백 화점과 관련된 여러 성격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한 범주이다.

‘사건’ 클래스 개체 데이터 선정 기준으로는, ①화신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 ②사건의 주체로서 화신백화점이 주도한 사건, ③객체로서 화신백화점이 참여한 사건, ④ 화신백화점 소속 인물들이 주도하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등 총 4가지이다. 사건은 기사의 글을 통해 그 구체적 정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클래스의 개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글’ 클래스의 개체 데이터와 연결된다.

속성 항목 가운데 ‘category’는 연구자의 해석적 측면이 반영된 항목으로, ‘백화점(DepartmentStore)’ 클래스의 개체 중 추상적이고 불특정한 개체인 ‘종로 화신백화점’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된 속성이다. 화신백화점이 주도한 사건일 경우 ‘host’를, 참여자로서 참여한 사건일 경우 ‘participant’를, 우발적으로 휩쓸린 사건일 경우 ‘happening’을, 운영진의 행위로 인해 그 영향을 받은 사건일 경우에는 ‘influence’를 입력하였다. 사건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당대 화신백화점의 문화적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7] 사건(Event) 클래스 속성 항목 및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E19331201TO31
name	대표명	19331201-31이중경품부 세모증답용품대매출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E19331201TO31
category	host/participant /happening/influence	host
sort	single/multiple	multiple
s_date	사건 발생 일자	19331201
f_date	사건 종료 일자	19331231

(6) 지시 요소로서의 클래스: 시간(Time)

‘시간(Time)’ 클래스는 ‘신문’과 같은 기록이 언제 발행되었고 ‘사건’이 언제 발발했는지를 정리하는 연월일 형식의 시간 데이터이다. 해당 정보 요소를 정리한다면 추후 타임라인을 구축하여 시간 축을 중심으로 유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8] 시간(Time) 클래스 노드 예시

속성 항목	설명	예시
id	식별자	T19331201
name	대표명	19331201
uri	통합자원식별자	http://dh.aks.ac.kr/iri/jwd#T19331201
sort	연단위(y)/월단위(m)/일단위(d)	d

3. 관계(Relation, ObjectProperty) 설계

앞서 설계한 18개의 클래스 각각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관계의 양상을 표현할 수 있는 서술어를 정의하였다. 이때 모든 개체 사이의 관계를 연역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 세계의 맥락을 기준으로 유효하다 판단되는 관계들을 정리해 29가지 관계를 설계하였다.⁸²⁾

[표 29] 시맨틱 데이터 모델: 관계(Relation) 항목

ObjectProperty	Description	Domain	Range
jwd:manages	A는 B를 운용한다	Institution	Archive
jwd:provides	A는 B를 제공한다	Archive	DigitalEdition
jwd:hasElement	A는 요소 B를 갖는다	DigitalEdition	OnlineArticle
owl:sameAs	A는 B와 동일하다	OnlineArticle	OnlineArticle
jwd:hasOnlineEdition	A는 온라인 판 B를 갖는다	Article	OnlineArticle
jwd:hasElement	A는 요소 B를 갖는다	Newspaper	Article
imk:isEditionOf	A는 B의 간행본이다	Newspaper	Press

82) 관계 설계에 있어서 더블린 코어의 메타데이터 형식(dcterms), rdf 기반의 사회적 관계망 온톨로지(foaf), 웹 온톨로지 언어(owl)를 기본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2016년에 제정한 이후 매년 보완 및 확장해 오고 있는 'EKC(Encyves of Korean Culture)' 데이터 모델과 본 연구자가 참여한 2020년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구축> 팀에서 설계한 IMK(Intellectuals in Modern Korea)' 데이터 모델을 참조하였다.

imk:isPublishedIn	A는 B에 발행되다	Newspaper	Time
jwd:contains	A는 B를 수록한다	Article	Text
		Article	Photo
		Article	Drawing
ekc:mentions	A는 B를 언급한다	Text	Place
			Person
			Object
			DepartmentStore
			Group
			Concept
jwd:refersTo	A는 B를 지칭한다	Text	Event
ekc:creator	A는 B를 창작자로 두다	Text	Person
jwd:appearsIn	A는 B에 나타난다	Place	Photo
		Person	
		Object	
		DepartmentStore	
		Group	
		Place	Drawing
		Object	
		DepartmentStore	
jwd:hasCaptionAbout	A는 B로 해설된다	Photo	Place
			Person
			Object
			DepartmentStore
			Group
ekc:creator	A는 B를 창작자로 두다	Drawing	Person
jwd:advertiser	A는 B를 광고주로 두다	Article	DepartmentStore
jwd:hosts	A는 B를 주최하다	DepartmentStore	Event
		Person	
		Group	
ekc:participatesIn	A는 B에 참여하다	DepartmentStore	Event
		Person	

		Group	
imk:isSetIn	A는 B에서 일어난다	Event	Place
			DepartmentStore
edm:isNextInSequenceTo	A는 B와 선후관계이다	Event	Event
dcterms:isPartOf	A는 B의 부분이다	Event	Event
imk:isOccuredIn	A는 B에 일어난다	Event	Time
jwd:sells	A는 B를 판매한다	DepartmentStore	Object
imk:isMergedInto	A는 B로 합병되다	DepartmentStoree	DepartmentStore
dcterms:isPartOf	A는 B의 부분이다		
imk:isLocatedIn	A는 B에 위치한다		
jwd:belongsTo	A는 B에 속한다		
imk:worksAt	A는 B에서 근무하다	Person	DepartmentStore
jwd:isOwnerOf	A는 B의 소유주다	Person	DepartmentStore
foaf:member	A는 구성원 B를 두다	Person	Group
imk:isPredecessorOf	A는 B의 전신이다	Place	DepartmentStore
dcterms:isPartOf	A는 B의 부분이다	Time	Time
edm:isRelatedTo	A는 B와 관련이 있다	ALL	ALL

참고문헌

1. 원자료 및 원자료 수록 문헌

『京城商工名錄』, 京城商工會議所, 1935.

『京城商工名錄』, 京城商工會議所, 1937.

『국민신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신가정』(창간호, 1933년 1월), 『실화』(제2호, 1938년 10월), 『문장』(제2호, 1939년 2월)

2. 단행본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일본』, 문학과 지성사, 2009.

김현·김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리브커 야퍼(저)/박지환(역), 『도시인류학』, 일조각, 2020.

서울역사박물관, 『〈대경성부대관〉과 『대경성도시대관』으로 보는 경성상점가』, 서울역사박물관, 2018.

손영옥, 『미술시장의 탄생 - 광통교 서화사에서 백화점 갤러리까지』, 푸른역사, 2020.

최지혜, 『경성 백화점 상품 박물관』, 혜화1117, 2023.

하시야 히로시(저)/김제정(역),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2005.

화신사십년사편찬위원회, 『화신40년사』, 화신산업주식회사, 1966.

화신오십년사편찬위원회, 『화신50년사:1926~1976』, 화신산업주식회사, 1977.

3. 전시도록

부산근대역사관, 『百貨店, 근대의 별천지』, 부산근대역사관, 2013.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2021.

4. 학술논문

김지선·류인태, 「여향문화 연구와 데이터 모델링」, 『한국한문학회연구』 85, 한국한문학회, 2022, 79~118쪽.

김현·안승준·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1(1),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17~61쪽.

노혜경, 「화신백화점의 성공과 역사문화적 배경」, 『경역사연구』, 제33권 제3호, 2018, 43~71쪽.

류인태, 「데이터로 고전을 읽는다는 것」, 『고전문학과 교육』 제5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41~70쪽.

- 목수현,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0집, 2009, 97~116쪽.
- 박은영, 「1920~1930년대 경성의 쇼윈도: 신문·잡지 자료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제43호, 2016, 87~112쪽.
- 손정숙, 「일제시기 백화점과 일상소비문화」, 『동양고전연구』, 제25집, 2006, 237~260쪽.
- 안정연, 「화신백화점의 보존 논의와 도시계획」,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 :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2021.
- 안정연·김기호, 「화신백화점의 보존논의와 도시계획적 의미」, 『한국 도시설계학회지』15-6, 2014
- 염복규, 「민족과 욕망의 랜드마크-박흥식과 화신백화점」, 『도시연구』, 제6호, 2011, 43~71쪽.
- 오인욱, 「한국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2호, 2007, 13~23쪽.
- 오진석, 「대중매체를 통해 본 1930년대 백화점의 일상」, 부산근대역사관, 『백화점, 근대의 별천지』, 부산근대역사관, 2013.
- 오진석, 「일제하 朴興植의 기업가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제118집, 2002, 93~151쪽.
- 오진석, 「일제하 백화점업계의 동향과 관계인들의 생활양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2004.
- 장문석·류인태,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문학사연구』 7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347~426쪽.
- 정안기, 「1940년대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조선비행기공업(주)」, 『경영사연구』, 제30집 제4호, 2015, 197~226쪽.

5. 학위논문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손영옥, 「한국 근대 미술시장 형성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안정연, 「도시계획에서 역사환경 보존 인식 변화 : -서울 종로2가 불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오진석,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의 성장과 변모 : 朴興植의 和信百貨店 경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상혁, 「일제강점기 한·일 백화점 기업의 성장 과정과 지배구조 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6. 웹 자원

- 공훈전자자료관, 원문사료실,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MeritsDataList.do>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네이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동아일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
조선일보,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100, <https://newslibrary.chosun.com/>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emuseum.go.kr/main>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main.do>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https://kdp.aks.ac.kr/>